

주요 아제르바이잔 경제동향(2022.10.17-10.28)

1. 에너지 및 인프라

가. 1-9월 원유 가스 생산 및 수출량

- 10.14 에너지부가 발표한 1-9월 유전/가스전별 원유 가스 생산 및 수출량은 아래와 같음.

원유가스 생산 및 수출량	유전/가스전			합계
원유생산량/콘덴세이트 포함(백만톤)	ACG/15.4	샤데니즈/3.3	SOCAR/5.8	24.5
가스 생산량(입방미터)	ACG/10	샤데니즈/18.5	SOCAR/5.9	34.4
원유 수출량/콘덴세이트 포함(백만톤)				19.7
가스 수출량(입방미터)	유럽/8.3	튀르키예/6.1	조지아/1.9	16.3

나. 장길란 국제공항 개항

- 10.20 장길란 국제공항 개항식 행사에 알리에프 대통령,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참석함.
- 양국 정상은 Dost Agropark 스마트 농업단지 프로젝트 개시 행사 등 다수의 행사에 참석하고, 공동기자회견에서 탈환지역 양국 공동 참여 인프라 건설 과정, 탈환지역 내 국제공항의 중요성, 농업 분야 협력 관련 등 언급함.

다. SOCAR-Romgaz 흑해 LNG 공동 생산 계획

- 10.19 주재국 경제부는 SOCAR-루마니아 사 Romgaz 간 흑해 LNG 공동 생산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, 프로젝트 시행은 양측 공동자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.

라. BP, 2024년 동부 장가주르 태양열 발전소 설립 예정

- 10.20 <Republic> 당지 기사에서 샤바조프 장관은 주재국 전력생산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함.
 - 신규 전력발전소 시운전으로, 아제르바이잔 전체 전력생산량은 7,953.9 MW에 이를 것. (전년대비 4.9% 증가).
 - 현재 240MW 규모의 <샤파그(Shafag)> 태양열발전소 건설을 BP와 협의 중으로, 이는 연간 5억 kW/h의 전력생산이 가능할 것. 2022년 말까지 기술, 디자인, 재정이슈를 해결하고, 2023년 건설을 시작하여 2024년 시운전 할 것이며, 생산되는 그린에너지는 압셰론으로 수송되어 상가찰터미널(Sangachal terminal)발전소 사용될 것이므로 기존 천연가스 사용량은 절약될 것으로 예상.
 - 유럽 전력수출을 위한 EU 지원 프로젝트 중 유망한 프로젝트는 조지아-루마니아 흑해 해저 에너지 및 디지털 연결 프로젝트로, 조지아와 루마니아 사이에 1,000MW 용량, 1,195km 길이의 전력송전선과 디지털 연결케이블 매설 예정.

마. 아제르바이잔-조지아 에너지 협력 관련

- 알리에프 주재국 대통령은 조지아를 방문하여 가리아쉬발리 총리와 회담을 갖고, 기자회견에서 양국 에너지 협력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함.

- 금년 9개월간 양국 교역 규모는 10억불 이상, 아제르바이잔의 對 조지아 투자는 30억불 이상임. 전력 관련 신규 프로젝트 구상 중으로, 조지아 경유, 카스피해를 거쳐 세계시장에 157GW 전력 수출을 계획하는 바, 동 분야 조지아의 협력 기대.
- 바쿠-트빌리시-제이한 송유관, 바쿠-트빌리시-에르주름 송유관, 바쿠-숨사 송유관, Middle Corridor 등 공동프로젝트의 지속 및 가속화 계획에 대해 밝힘.
- 9개월간 양국 간 화물운송은 전년동기대비 75% 증가함. 바쿠-트빌리시-카르스 철도의 수송능력을 5백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으로, 이를 위해 2022-2023 추가 투자 계획임.

바. 아제르바이잔-이란-나흐치반 고속도로 2024년까지 개통 예정

- 10.21 국제수출포럼<Made in Russia 2022>에서 알렉세이 오버츠크(Overchuk) 러 부총리는 인프라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함.
- 남-북교통회랑 인프라 시설은 구축되어 있지만 현대화, 역량제고가 필요함. 러시아, 아제르바이잔, 이란은 물류이동 관리와 국경통제 절차를 통일화하여 페르시아만 항구에서 발트해까지 물류의 원활한 통과를 보장하는 서부 노선의 3자 운송 및 물류 오퍼레이터 구축을 협의 중.
- 아르메니아를 우회하는 도로는 이미 이란을 통해 건설되고 있으며, 2024년까지 완공 예정으로, 이는 이란, 튀르키예, 유럽시장으로부터 동 경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.

2. 국내경제 및 국제경제협력

가. 중앙은행, 기준금리 7.75%→ 8% 인상

- 10.28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7.75%에서 8%(0.25%p↑)로 인상했다고 발표함.

나. 주재국 1-9월 국가예산 집행 현황

- 주재국 재무부는 금년 1-9월 예산집행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.

	2022년 1-9월	2021년 1-9월	비교/%
세입/ 마나트	224억 140만	178억 716만	25.3
세출/ 마나트	204억 707만	177억 119만	15.6
흑자/ 마나트	19억 3,070만	1억 5,970만	-

다. 1-9월 주재국 교역 동향

- 10.18 주재국 관세위원회는 1-9월 교역 규모가 약 398억불을 기록하여, 전년동기대비 1.7배 증가했다고 밝힘.

(단위: US \$)

	2022년 1-9월	2021년 1-9월	비교
교역량	39,814,437,680	22,974,296,030	1.7배
수출	29,521,125,650	14,629,820,870	2배
수입	10,293,312,030	8,344,475,160	1.2배
무역수지	19,227,813,620	6,285,345,710	3.1배

- 주요 교역국은 △이탈리아(147억불, 37.17%), △튀르키예(43억불, 10.93%), △러시아(25억불, 6.38%), △인도(15억불, 4%), △중국(15억불, 3.84%)임.

※ 동 기간,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은 약 1억 9,122만불로, 전년동기대비 21.4% 증가.

라. 1-9월 주재국 관광 동향

- 10.24 주재국 통계위원회는 1-9월 주재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76개국에서 1,162,700명으로, 전년동기대비 2.2배 증가했다고 발표함.

마. 1-9월 비현금결제 거래량 증가

- 주재국 중앙은행은 1-9월 비현금결제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.2배 증가, 전자상거래는 2.7배 상회하였으며, 동 기간 비대면·비현금결제 거래는 전년대비 2.1배 증가했다고 발표.

바. 2022년 상반기 주재국 대외부채 감소

- 10.17 주재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재무안정성 검토에 따르면, 금년 상반기 주재국 내 은행의 대외부채는 17.1% 감소한 3억 1800만불로, 아직까지 주재국 은행시스템 내 러-우사태 관련 제재로 인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함.

사. Fitch 社, 주재국 경제전망 조정 발표

- 10.24 Fitch는 주재국 경제전망 조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. 금년 GDP 성장률을 4.3%로 조정하고, 장기외화발행사등급(IDR)에 대한 전망을 안정에서 긍정(BB+)으로 상향조정함.

	2022	2023	2024
GDP/%	4.3	2.3	2.3
인플레이션/%	13.7	9.7	6.8
경상수지흑자/GDP 대비	27.3	19.3	12.1

- 9월 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동기대비 15.6% 증가했으며, 이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 차질로 인한 가격상승(21.8%)에 기인함.

아. 2022년 1-9월 거시경제지표

- 10.17 주재국 통계위원회가 발표한 1-9월 거시경제지표는 GDP 980억 마나트(576억불, 전년동기대비 5.6% 증가), 1인당 GDP 9,748 마나트(5,734불, 전년동기대비 5.1% 증가), 전체산업분야 641억 마나트(377억불, 전년동기대비 0.6% 감소), 산업분야(비석유부문 포함) 130억 마나트(76억불, 전년동기대비 7.2% 증가) 등.
- 2022년 1-9월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3.4%(전년동기대비 15.6% 증가)로, 식품부문 19.3%, 비식품부문 7.6, 서비스부문 10.2% 기록. 2022년 1-8월 월평균임금은 829 마나트(488불)로, 전년동기대비 14.3% 상승함.

자. 일본, Middle Corridor 참여 가능성 조사

- 일본 경제산업성, 외무성, 국제협력단(JICA), 대외무역기구(JETRO), 운송·물류 기업 등이 참여한 대표단은 Middle corridor (TITR)의 일본 참여 가능성 조사를 위해 주재국을 방문함.
- 라흐만 후마토프(Rahman Hummatov) 디지털개발교통부 차관은 Middle corridor의 가능성, 물리적 인프라 개발을 위한 관세정책 통일화, 국경횡단절차 간소화, 회랑의 디지털화 필요성에 대해 밝힘.
- 또한,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, 조지아와 함께 Middle corridor에서 매우 중요한 바쿠-트빌리시-카르스(BTK)철도의 점진적 물동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Middle corridor의 디지털화는 운송교통의 투명성과 운송업체에 대한 동등한 조건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언급함.